

삿포르 눈축제 - 국제 눈조각 콩쿠르

삿포르 눈축제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국제 눈조각 콩쿠르’입니다. 매년 해외에서 온 팀이 가장 인상에 남는 눈 조각상 제작을 겨룹니다. 국제 콩쿠르는 삿포르시가 국제사회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1974년에 6개국 팀이 참가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축제의 큰 임팩트가 되어 문화교류와 창조성을 위한 길을 크게 열었으며, 지금은 매우 인기가 높은 이벤트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37개 나라와 지역의 팀이 콩쿠르에 참가했습니다.

해외 참가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테마는 국내 참가자들의 테마와는 전혀 다르며, 뉴질랜드팀은 거대한 럭비공을 제작했고, 2006년도에 우승한 캐나다팀은 ‘바다코끼리와의 싸움’ 2012년도에 우승한 홍콩팀은 ‘비약하는 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더운 나라의 팀도 과감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팀은 여러 번 콩쿠르에 참가했으며, 어느 해에는 활기찬 코끼리의 무리를 제작했고, 다른 해에는 방콕 대궁전의 장대한 외관을 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자주 참가했으며, 어느 해의 출품작은 4마리의 코주부원숭이였습니다. 한국팀은 1회 때부터 고정 참가국입니다. 2014년에는 삿포르시와 자매도시인 한국의 대전광역시가 ‘뫼비우스의 지구’라는 타이틀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 구성은 3인 1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한 것을 단 5일 만에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작업합니다. 방문자는 팀들의 작품 제작 현장을 견학하거나, 팀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 콩쿠르의 눈 조각상은 오도리 공원의 11초메 블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경관을 보려면 삿포르 TV 타워에서 국제 콩쿠르와 오도리 공원의 모든 눈 조각상과 얼음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쿠라야마의 올림픽 스키점프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